

부끄러워 할 줄 알면 대장부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7>

지금까지 계율 전반의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재가불자와 관련된 계율을 담은 경전을 중심으로 한 발 더 나아가보자.

부처님께서 안타 국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계를 받음으로써 불자의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계를 받았다면 자신이 있는 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초발심지경문』에서도 "오계를 받아서 지법 개체에 관계된 사항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법개체는 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계가 되는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떠한 예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범계를 하기 쉬운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청정을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율의 내용을 잘 배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계율에 대한 이해나 신념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승계의 정신이나 보살의 방편이라는 입

회하는 일이 중요하며, 결국 지계와 합되는 범계가 아닌 것이다.

서산 대사는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참회가 있을 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고 부처님이 말씀

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생활은 독경, 염불, 주력, 불사 등의 기도와 수행으로 기복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가자를 위한 계율을 담은 경전이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불설우바새오계상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경은 중국 유승사대(431년)에 구나발마 법사가 번역한 것인데, 고려대장경에 들어 있다. 『오계상경』 우바새오계약

오계상경-1

장에서 개가법을 설명리 말하게 되면,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는 지계의 근본 정신이 회색될 수도 있고, 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 환경은 범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계를 범한 후에야 참회의 마음이 생겨나는데 계를 지키는 일만이나 참

재가자가 지녀야 할 계율 설명 지계·참회 다같이 중요한 공덕

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생활은 독경, 염불, 주력, 불사 등의 기도와 수행으로 기복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가자를 위한 계율을 담은 경전이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불설우바새오계상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경은 중국 유승사대(431년)에 구나발마 법사가 번역한 것인데, 고려대장경에 들어 있다. 『오계상경』 우바새오계약

(Buddha, 佛陀)의 음사인데, 깨달으신 분, 평화 발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만법의 성(性), 절대의 본체나 도리(道)와 상(相), 상대의 현상적인 모습(모습) 모두 다 깨달았다는 말이다. 깨달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각(自覺)으로 자신의 마음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둘째는 각타(覺他)로, 모든 법을 남김없이 깨달는 것이

"변하는 몸과 마음은 '참된 나'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없을 정도로 빠듯한 생활과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보살사상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반야심지(般若實相)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의 이념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참된 나입니다. 또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덧없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반야바라밀의 정법(正法)을 올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할 수 없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늙게 하려는 것, 둘째는 병들지 않으려는 것, 셋째는 죽지 않으려는 것, 넷째는 멸하지 않으려는 것, 다섯째는 다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세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여 부질없이 괴

우리는 "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몸'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肉身)은 생 각지도 못한 병에 걸리고 또 늙어만 갑니다. 도무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제멋대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인연의 모임이고 항상 변합니다. 마음이 참나라면 만사가 뜻대로 되어야 할 터인데, 언제나 마음은 원치 않는 데도 나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원치 않는 데도 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중생은 무명에서 태어나고, 둘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덧없고, 셋은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넷은 나도 나의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때와 곳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은 고금이 같아서, 진(眞)을 부수지 아니하고 속(俗)을 밝히며, 색(色)을 인연하여 공(空)을 드러낸다. 그 욕망을 찾으며 오직 망상 뿐이요, 뜻을 잃으며 다 어리석음이다. 유(有)에 집착하면 곧 다통이요, 허망한 마음도 스스로 통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회 중계

불광사 호법법회

<2000년 2월 2일>



보하지암 스님 <불광사 주지>

욕망대상은 덧없고 나의 것 없으니 집착 놓아야 깨우쳐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덧없는 것이며 괴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잘못입니다. 깨달음이 마음에 있다면 미혹도 마음에서 나타 납니다. 모든 것은 바로,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때와 곳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은 고금이 같아서, 진(眞)을 부수지 아니하고 속(俗)을 밝히며, 색(色)을 인연하여 공(空)을 드러낸다. 그 욕망을 찾으며 오직 망상 뿐이요, 뜻을 잃으며 다 어리석음이다. 유(有)에 집착하면 곧 다통이요, 허망한 마음도 스스로 통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덧없는 것이며 괴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잘못입니다. 깨달음이 마음에 있다면 미혹도 마음에서 나타 납니다. 모든 것은 바로,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지혜가 없는 마음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알아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반야를 알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마음이 만들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은 서로 다른 게 아닙

반야의 세계란 어떠한 말로도 해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眞)을 부수지 아니하고도 속(俗)을 밝힐 수 있는 높은 봉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도리를 체득하여 반야행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m.com)

인터넷에 디지털경전 2천권 띄워

세계의 불교학 <7> 영국 ②

영국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술 단체인 '발리경전협회'에서 발리어 삼장 모두를 번역했을 만큼 영국의 불교학의 학문적 배경은 두텁다. 19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영국의 불교학계는 100년 동안 동·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대부 분의 경전을 번역·연구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을 쌓아나간 것이다. 발리경전협회는 지금 주석서 번역에 주력하고 있는데, 약 10% 가량이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발리어 장경을 원전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학자는 15명 안팎이라고 한다. 발리어를 읽을 줄 아는 것과 번역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불교학계의 업적은 놀라움 그 자체다.

그런데 영국의 불교학계는 20세 기에 접어들어 100년 간의 학문 성과와 그것의 토대가 되었던 원전들 보존하고 알리는 데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영국의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의 '돈황 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옥스포드·런던·캠브리지 대학 등의 불교학 관련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대영도서관의 수장 위트필드(Suzan whitfield)가 이 프로젝트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돈황 프로젝트'는 '스타인(Stein) 컬렉션'을 번역하고 판본을 연구하며 또 디지털 경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 컬렉션은 독일인 아우렐 스타인(Aurel Stein, 1862~1943) 박사가 인도, 중국, 이란, 이라크, 요르단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해 유럽으로 들여온 경전들이다. 돈황본 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컬렉션이 바로 돈황 프로젝트의 기본 텍스트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탐험 보고서(Innermost Asia. Detailed Report of Explorations in Central Asia)>,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Chinese Manuscripts from Tunhuang in British Museum(대영박물관에 소



대영도서관에서 '스타인 컬렉션' 경전을 열람하고 있는 불교학자들.

공하고 있다. 특히 대영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20,000여 권의 스타인 컬렉션 경전 가운데 언어·주제·발간년도 등으로 선별한 2,000여 권의 디지털 경전을 제

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경전은 경전 전산화와 관련해 유일한 국제 학술 단체인 '전자불전협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장 위트필드는 "이 프로젝트는 19세기 초에 수집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자료(스타인 컬렉션)들을, 연구의 주제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사상적 관점으로 선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것이 완결되면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고 또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대중 속의 불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렵불교학의 특징은 불교학 주제를 세분화하고 또 전문화 함으로써 중부연구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인데, 바로 '돈황 프로젝트'는 이같은 장점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는 문헌 작업 이외에도 연관 학문 분야와의 끊임없는 교류로 경전 연구의 깊이를 더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m.com)

발리경전학회 원전 대부분 번역 돈황 프로젝트 불교대중화 선도

장된 돈황본 경전), <천불동의 불교예술(Cave of the Thousand Buddhas: Chinese Art from the Silk Route)> <6세기의 돈황(Six Centuries at Tunhuang)> 등을 비롯 해 수많은 연구서들이 발간됐다. 이외에도 1998년부터는 인터넷 상에 '돈황 프로젝트' 사이트를 개설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제

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경전은 경전 전산화와 관련해 유일한 국제 학술 단체인 '전자불전협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장 위트필드는 "이 프로젝트는 19세기 초에 수집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자료(스타인 컬렉션)들을, 연구의 주제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사상적 관점으로 선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것이 완결되면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고 또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대중 속의 불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괴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효덕(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도 (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슬호소정액(松藥精液)』, 『슬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계 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개)와 김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급과 봉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하고자 하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백면 덕천리 산 8-4

구분	비고
2인 1실	전세
1인 1실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 단 입원실 사용 1개월씩, 식대 각자 부담

불로화정본포